

[오늘의 성가] 시작: 1 봉헌: 221 성체: 167 파견: 200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

파리 시내 북쪽, ‘몽마르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는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조화시킨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1년부터 성당신축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1914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19년에 축성식을 가진 성당입니다. 지금 이 성당은 ‘예수 성심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상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당 이름을 정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성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성심 신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한 다음에 오는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하여 한 달 동안 예수 성심을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중세에서부터 이러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경하는 예수 성심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역대 교황님들도 예수 성심 신심을 승인하고 널리 권장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로 이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 1독서와 복음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기적을 베풀어 잠시 동안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결국 신세를 졌던 시몬 지방 사렙타 마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탄식 속에서 엘리야에게 울부짖었고, 엘리야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하느님께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린 다음에서야 아이를 살려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상적인 장례를 치르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 과부가 어떤 정도 하지 않았으나 먼저 다가가시어 죽은 이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에 다시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청을 올릴 때뿐만 아니라, 미처 청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늘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치 오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처 청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하는 바오로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1.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견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견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견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성사와 예비자교리 신청은 구역 담당 오재영 제노 형제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적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31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화 해설

예수 성심을 응시하는 성녀 말가리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예수 성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목숨까지 바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예수 성심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영현 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